

獨行潭底影 홀로 가는데 못 아래 그림자가 있고

數息樹邊身 자주 쉬어 가니 나무 옆에 몸이 있네

〈무가상인을 전송하다(送無可上人)〉

이 시구 아래 시인은 손수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두 구절을 삼 년 만에야 얻고 나서 한 차례 읊조리며 나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을 흘렸다. 지음知音이 만약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향 산의 가을 속으로 돌아가서 누워버릴 것이다!”

鳥宿池邊樹 새는 못가의 나무에 깃들고

僧敲月下門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네

〈이응의 은거지에 적다(題李凝幽居)〉

절뚝이는 나귀 위에서 시상詩想到 잠겨.

기태완

장안長安의 변화한 거리를 한 남루한 승려가 절뚝이는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승려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손가락으로 허공에다 연신 뭉가를 그리고 있었다. 밀칠 ‘추推’가 더 나은가? 두드릴 ‘고敲’가 더 좋은가? 승려는 허공에다 ‘추’자와 ‘고’자를 번갈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거리의 왁자지껄한 말소리도 말과 수레가 지나가는 것도 그에게는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오로지 ‘추’자와 ‘고’자라는 화두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승려는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물었다.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네”가 더 시적인가? “달빛 아래 문을 밀치네”가 더 시적인가? 그 순간 승려의 몸은 나귀의 등에서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언제 몰려왔는지 몇 명의 병사가 승려를 에워싸고 있었다. 승려는 자신도 모른 채 호위병사들의 몇 번에 걸친 경고의 외침을 무시하고 경조윤京兆尹의 행차에 충돌하고 말았던 것이다. 승려는 경조윤의 수레 앞으로 끌려갔다. 승려가 전후사정을 말하자 경조윤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고’자가 더 정취가 있다고 하였다. 이 경조윤은 바로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시인인 한유韓愈였다. 한유는 그 승려의 문

학적 재능을 사랑하여 환속하여 과거시험에 응하도록 권유하였다. 위 일화에서 곧 ‘추고’라는 고사가 탄생한 것이다.

가도賈島(779~843)는 자가 낭선浪仙이다. 유주幽州 범양范陽(지금의 북경 서남쪽 지역) 사람이다. 이른 나이에 승려가 되어 범명을 무본無本이라 하였다. 그가 출가한 것은 오로지 가난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유의 권유로 환속한 후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한 것은 34세 때였다. 그러나 시험 운이 없어 연달아 과거에 낙방하였다. 한유와 요합姚合 등 사우들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지만 그의 빈곤한 생활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역대 시인들 가운데 가도는 동시대의 맹교孟郊와 함께 빈곤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는 발가를 헤매며 채소를 구하고 편지를 써서 쌀을 구걸하여 끼니를 이어야 했다. 심지어 일용 노동자의 품팔이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런 경제적 절망 속에서 그를 구원한 것은 오직 사우들과의 교체와 시 창작뿐이었다.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급제하였으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가 비방죄로 지방의 말단관리로 좌천되었다.

이 글을 쓴 기태완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數里聞寒水 몇 리 길에 찬 물소리만 들리고
 山家少四隣 산가山家엔 사방 이웃이 드무네
 怪禽啼曠野 괴상한 새가 광야에서 울고 있고
 落日恐行人 떨어지는 해는 행인을 두렵게 하네
 初月未終夕 초생달 떠서 밤이 다하지 않았는데
 邊烽不過秦 변방의 봉수는 진寨땅을 넘지 않았네
 蕭條桑木外 쓸쓸한 산뽕나무 너머로
 煙火漸相親 인가의 불빛 점차 가까워지네
 〈저녁에 산촌을 지나다(暮過山村)〉

송나라 구양수歐陽修는 〈육일시화六一詩話〉에서 매요신梅堯臣의 말을 인용하여, 묘사하기 어려운 광경을 능히 그려내어 무한한 뜻을 언외에 머금도록 해야만 뛰어난 시인데, “괴상한 새가 광야에서 울고 있고, 떨어지는 해는 행인을 두렵게 하네”는 곧 여행길의 고생과 나그네의 수심을 언외에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지는 가도의 시 〈尋隱者不遇〉는 은연한 자연과 인간관계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시다.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었다
 言師採藥去 스승님은 약 캐러 가셨는데
 只在此山中 다만 이 산 속에 계실 것이지만
 雲深不知處 구름 깊어 있는 곳을 모르겠습니다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尋隱者不遇)〉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이 시는 대화법의 수사도 묘하지만, 언외의 뜻이 무궁하다. 그리하여 역대에 걸쳐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고 뜻한 노래로 불리었다.

평생 독신으로 산 가도는 부서진 금꺽 하나와 병든 나귀 한 마리만을 남긴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 곧 그를 추종하는 시파들이 줄을 이었다. 만당晩唐에서 이미 가도가 나귀를 타고 시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그린 〈가도기려도賈島騎驢圖〉란 그림이 유행하였다. 심지어 이동李洞과 같은 이는 가도의 동상을 주조해 놓고, 아침저녁으로 분향제배하며 부처처럼 모셨다. 이런 영광은 시성詩聖 두보도 일찍이 누리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만큼 가도는 시단에서 고음苦吟을 통하여 자신의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㉞